

보조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과 청허휴정의 ‘간화십종병’의 항목 배치 비교*

엄미경(명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zimzit@hanmail.net

- | | |
|-------------------------------|---------------------------------|
| I. 서론 | III.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의 확립
과 전개 |
| II. 간화십종병과 대해 종고의 무자화두
참구법 | IV. 청허 휴정의 간화십종병 배치 의도 |
| | V. 결론 |

요약문

본 논고는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과 청허 휴정의 ‘간화십종병(看話十種病)’의 항목 배치에 대해 비교 고찰하였다. 화두 참구시에 일어날 수 있는 병통으로 대변되는 ‘간화십종병’은 대해 종고의 『서장』에서 산발적으로 제시된 화두 참구법에서 연원하여 보조 지눌이 모아서 같거나 유사한 항목들을 묶어 열 개의 조항으로 만든 것이다. 지눌에 이어 그의 제자인 진각 혜심, 조선의 청허 휴정과 백파 공선, 진허 팔관, 용성 진중 등으로 이어졌다.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에 제시된 ‘간화십종병’은 여타의 전적들과는 그 순서를 달리하였는데, 그 순서에 연유가

* 본 연구는 2023년도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아사리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보조사상연구원 제144차 정기 월례학술대회(2023.03)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함).

있을 것이라는 데에 착안(着眼)하게 되어, 어떠한 의도에 의해 배치된 항목인가를 살펴해보았다. 그래서 나열 순서를 간화선의 화두 참구 수행의 순속도와 연계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다는 가정하에 고찰하였다.

그 결과, ‘유심(有心)’으로서 의근에서 사랑분별하여 헤아리는 거친 병통에서부터 ‘무심(無心)’으로서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껌벅이고, ‘언어(言語)’로서 말길에서 살길을 모색하거나 문자를 끌어들이며 입증하며 화두를 제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리려 하고, ‘적묵(寂默)’으로서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유무의 무라거나 진무의 무라거나 특정한 도리라고 이해하고 미혹한 채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로 귀결되어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청허 휴정의 간화십종병은 유심, 무심, 언어, 적묵으로의 거침에서 미세함으로 진행되는 화두 참구의 여정에 따른 순속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보조 지눌의 「간화결의론」에 제시된 십종병통의 순서는 ‘무자화두십종병’이라 명명함이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고,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에 제시된 십종병통의 순서는 모든 화두 참구에 있어서의 화두 참구 순속도와 연관성이 적용되므로 ‘간화십종병’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본다.

주제어

무자화두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 간화십종병(看話十種病), 선병(禪病), 십종선병, 간화병통, 간화선, 화두 참구

I. 서론

화두를 참구하여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병통에 대한 언급으로는 ‘무자화두십종병(無字話頭十種病)’이 그것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대혜 종고(大慧宗杲, 1089-1163)의 『書狀(서장)』에서 언급된 이래 고려의 보조 지눌(普照知訥, 1158-1210)과 진각 혜심(眞覺慧諶, 1178-1234), 조선의 청허 휴정(淸虛休靜, 1520-1604), 백파 긍선(白坡巨璇, 1767-1852), 진허 팔관(振虛捌關, ?-1782), 용성 진종(龍城震鐘, 1864-1940) 등으로 이어지면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의 병통에 대한 노파심이다. 대혜 종고

의 『서장』에서 연원하였으나 열 개의 항목으로 묶여서 제시되지는 않았고, 흩어져 제시된 것을 열 개의 항목으로 만든 이는 보조 지눌이다. 보조 지눌의 제자인 진각 혜심 또한 「구자무불성화간병론(狗子無佛性話揀病論)」에서 스승과 그 순서 및 언구를 동일하게 하였다. 진각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과해를 한 백파 공선의 「무자간병론과해(無字揀病論科解)」 또한 그 순서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이는 대혜 종고의 무자화두 참구법 가운데 여덟 개의 순서로 된 부분이다 또 다른 편지에서 실한 ‘眞無之無’와 ‘將迷待悟’를 각각 두 번째와 열 번째로 배정하여 나열한 것과도 그 순서는 같다. 그런데, ‘무자화두십종병’ 혹은 ‘간화십종병’에 대하여 거론한 중에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는 유독 그 순서를 달리하고 있다. 무작위로 나열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하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병통에도 그 화두 참구 수행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거침에서 미세함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는 추론을 잠정적으로 갖게 되었다. 그래서, 보조 지눌의 십종병통은 ‘무자화두’ 참구에서 오는 병통에 대한 지적으로서 적합한 순서로 볼 수 있고, 청허 휴정이 열거한 십종병통은 일반적으로 간화선의 화두 참구 수행의 순속도와 연계해 볼 수 있는 순서라는 점을 비교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II장 간화십종병과 대혜 종고의 무자화두참구법에서는 ‘간화십종병의 유래에 대한 설’과 ‘대혜 종고의 무자화두참구법’을 살펴보고, III장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의 확립과 전개에서는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 확립’과 ‘보조 지눌 계승의 무자화두십종병 전개’를 검토할 것이며, IV장 청허 휴정의 간화십종병 배치 의도에서는 ‘『선가귀감』의 간화십종병’과 ‘간화십종병 배치 의도와 화두참구 순속도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여타의 간화선 십종병통의 순서와는 다른 청허 휴정이 언급한 간화십종병에 대하여 화두 참구 단계와의 관계 여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조 지눌과 청허 휴정이 제시한 각각의 십종병통의 항목 순서에 따른 그 명칭을 ‘무자화두십종병’과 ‘간화십종병’으로 달리 부여해야 함의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II. 간화십종병과 대혜 종고의 무자화두참구법

1. 간화십종병의 유래에 대한 설

‘간화십종병’의 연원에 대한 연구로는 김영옥(2006)의 「간화십종병의 연원」이 있다.¹⁾ ‘지눌은 조주 무자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대혜 종고가 제시한 뜻을 정리하여 열 가지 병통을 거론하고 있다’고 하며, 보조 지눌의 『절요(節要)』에서 제시한 설명대로 나열하였다.²⁾

『절요』에서는 대혜 『서장』의 「答富樞密」에서 보인 여덟 항목에다 「答張舍人」에서 설한 ‘眞無之無’와 ‘將迷待悟’를 합해서 열 개의 항목으로 해서 ‘십종병’으로 만들었다고 하였지만, ‘무자화두십종병’의 전래 항목의 순서는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에서 제시한 것이다. 「答富樞密」의 여덟 항목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이에 ‘眞無之無’를, 맨 마지막에 ‘將迷待悟’를 추가한 순서로서 정착되어 ‘무자화두십종병’으로 계승되었다.

김영옥(2006)은 ‘십종병’이라는 이름으로 청허 휴정 등에도 면면히 계승되

1) 김영옥 2006, 10-11. 십종병의 연원과 전개에 대하여, “10종병은 원래 간화선의 대성자인 중국의 대혜종고가 내세운 조목들을 지눌이 정리하여 10종병이라는 용어를 붙인 것이다. 중국에서는 10종병에 관련된 대혜의 말이 산발적으로 인용되기는 하지만 10종병이라는 하나의 틀로 간화에 접근한 예는 거의 없다. 간화선 실천의 요체를 담은 고봉원묘(高峯原妙, 1238-1295)의 저술 『禪要』에도 10종병 조목 중 한두 가지가 거론될 뿐이다. 10종병이란 용어는 지눌이 제기한 이래 해심이 「狗子無佛性話看病論」이라는 저술을 통하여 지눌의 10종병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켰으며, 그 뒤 태고(太古, 1301-1382)·서산(西山, 1520-1604) 등을 거치면서 면면히 계승되어 화두를 실천하는 방법적 요체로 우리나라의 선사들에게 수용되어 왔다 … 10종병은 대표적인 화두 중 하나인 조주(趙州, 778-897)의 무자(無字)를 궁구함에 있어서 드러나는 방법적 병폐를 지적함으로써 화두 공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개괄하였다.

2) 김영옥 2006, 17-24. 십종병 열 가지 조목에 대하여 “① 있다·없다는 대립적 유·무의 무라고 이해해서는 안된다[不得作有無會]. ② 일정한 이론적 도리에 근거해서 이해해서는 안된다[不得作道理會]. ③ 분별의식 속에서 생각으로 헤아리며 알아맞히려 해서는 안된다[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④ 눈썹을 움직이거나 눈을 깜박거리는 것과 같은 미세한 마음의 움직임에 뿌리를 내리고 알아내려 해서도 안된다[不得向揚眉瞬目處揅根]. ⑤ 언어의 틀에서 살림살이를 해서도 안된다[不得向語路上作活計]. ⑥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경계 속에 갇혀 있어도 안된다[不得躡在無事匣裏]. ⑦ 화두를 드는 것에서 알아차리려 해서는 안된다[不得向舉起處承當]. ⑧ 경전이나 어록 등의 문자를 끌어들이어 입증하려 해서도 안된다[不得向文字中引證]. ⑨ 참된 무(無)로서의 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有眞無之無]. ⑩ 미혹된 현재 상태에서 깨닫기를 기대하는 것[將迷待悟]”의 순으로 각각 그 조목에 대하여 근거를 들며 설명하였다.

었다고 하였는데, 청허 휴정은 이와는 다른 순서로서 ‘간화십종병’의 항목을 제시하였다. 항목의 순서에 상관없이 ‘십종병’이라는 명칭에 의미를 두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호귀(2019)의 「용성진종의 「總論禪病章」에 나타난 십종병 고찰」에서는 용성 진종의 ‘십종병’이라고 제시하였으나, 용성이 제시한 열두 개의 항목에서 열 개를 제시하여 용성의 십종병이라고 하였다. 용성은 보조 지눌의 순서와 똑같이 간화십종병을 언급하면서 뒤이어 따로 선병(禪病) 열두 가지를 밝히는 절(別明禪病十二節)에서 간화십종병과는 그 명칭에 차이를 보이기도 하고 항목 수에서도 차이가 나는 ‘선병십이(禪病十二)’를 별도로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대혜 종고, 보조 지눌, 진각 혜심, 청허 휴정, 백파 긍선, 용성 진종으로 이어지는 간화십종병의 명칭을 비교하고 있다. 용성의 ‘禪病十二’를 열 개의 항목인 십종병으로 줄여서 제시하면서 용성이 네 번째로 설명한 ‘論無心病’을 십종병의 두 번째로 제시하였다. 용성이 설한 설명을 인용하면서 의견을 첨가하여 용성의 십종병 가운데에서 가장 큰 특징으로 들고 있다.³⁾ 용성의 설을 빌어서 ‘眞無之無’를 ‘無心’으로 대체한 것으로 보았다.⁴⁾

3) 김호귀 2019, 236. “여기 나열된 열 가지 명칭 가운데서 용성의 경우에 기존의 용어와 다른 점은 ② [論無心病]의 경우 기존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보이지 않은 無心の 의미가 무자화두의 無를 논하는 병통으로 제시되어 있다. 또한 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平常의 의미가 무자화두의 無를 논하는 병통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에 대하여 용성은 무자화두의 ‘無’에 대해 납자가 마음과 경계가 본디 공으로서 염착됨이 없는데,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사람을 보고 공연히 웃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장난감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처럼 무심의 이치로 파악하려는 것이라고 말한다. ②는 기존의 경우에 모두 ‘無’를 眞無의 의미로 파악하려는 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진척된 경우이다. ‘無’를 진무의 무라는 의미로 파악하려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손쉬운 접근법이다. 그러나 ‘無’를 ‘無心’의 의미로 파악하려는 것은 무자화두를 참구하고 있으면서도 무자화두를 참구하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더 이상 무자화두를 참구하고 있다는 분별행위에도 집착하지 않으려는 것쯤으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용성은 이런 경우야말로 무자화두 그 자체에조차 집착이 없어야 비로소 무자화두 자체를 가장 잘 참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납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은 용성이 제시한 십종병의 명칭 가운데 가장 특색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4) 『龍城禪師語錄』(Y vol. 1, 32b1), 제5장 「總論禪病章」, 4. 論無心病, “或有看話之時, 商量云趙州道無意者, 心境本空, 無所染着, 譬如兒孩, 見人空解笑, 弄物不知名, 此認得箇無心道理, 而生解者也”(혹은 어떤 사람들이 화두를 참구할 적에 생각으로 헤아리면서, ‘조주가 말한 무자의 의미라는 것이 마음과 경계가 본래 공하여 물든 바가 없는 것이니, 비유하건대 마치 어린아이가 사람을 보면서 의미 없이 웃을 줄 알고, 장난감을 갖고 놀면서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저 무심의 이치를 인지하고는 알음알이를 낸 것이다).

이 밖에 김호귀(2007)의 「白坡巨旋의 [無字揀病論科解]에 대한 고찰」에서는 진각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대한 백파 공선의 과해의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과해에 대한 배열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박태원(2010)의 「간화선 화두간병론(話頭揀病論)과 화두 의심의 의미」에서는 ‘화두간병론’과 ‘알고자 하는 모르는 마음’과 ‘오직 모르는 마음’을 통한 두 종류의 의심을 구분지어 논하였다. 정성본(2005)의 「眞覺국사 慧諶의 看話禪 연구」에서는 진각 혜심의 어록을 중심으로 혜심의 간화선 사상을 살펴보면서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보인 ‘조주의 無字화두 참구와 간화선의 禪病’에 대해 다루었다. 이병욱(2020)의 「퇴옹성철의 보조지눌 사상의 비판과 두 사상의 공통점」에서는, 지눌이 「간화결의론」을 통해 무자화두 십종병을 제시하면서 간화선을 선양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염중섭(자현, 2018)의 「慧諶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 찬술 배경과 내용 분석 - 看話+禪病을 중심으로 -」에서는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간화십종병을 중심으로 수선사 초기의 선불교적인 측면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이해를 수립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간화십종병’에 대한 연원으로서는 대혜 종고의 『서장』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이다.

2. 대혜 종고의 무자화두참구법

이와 같이 ‘간화십종병’, ‘무자화두십종병’, ‘선병’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나 화두참구에 있어서의 병통이 되는 이들 ‘간화십종병’류는 한결같이 대혜 종고의 『서장』에서 연원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혜의 『서장』을 열람하던 지눌은 당시의 수행 병폐가 대혜 시기의 잘못된 선 수행 풍조와 큰 범주에서 매우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으므로, 화두 참구 시에 제거되어야 할 병통이 나열된 부분에서 크게 계합하여 대오(大悟)한 후 열 가지 항목으로 아우르게 되었을 것이다.

기존의 여실언교에 의한 수행법인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과 성적등지문(惺寂等持門)을 비롯해 지눌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던 간화수행법에 있어서 미

진한 듯 하였던 부분이 눈 녹듯 사라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지해의 장애라는 자취가 남을 수도 있는 정(定)과 혜(慧)의 두 수행문을 넘어서 간화란 경절 방편이 요구되는 시점에 십종병과 관련한 부분을 접하고는 간화경절문으로 확립하여 자신의 간화 수행법에 적극 수용하면서 「간화결의론(看話決疑論)」을 저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⁵⁾

간화선의 화두 참구 십종병의 연원이 된 대혜가 제시한 무자화두 참구시의 방법들은 지눌의 「간화결의론」에 열 개의 항목으로 제시된 이래, 혜심에 의해 무자화두십종병이란 틀로 형성되고 확립됨을 시작으로 후에 여러 선사들에 의해 계승되고 인용되었다. 이러한 간화십종병통의 항목 나열 순서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대혜의 『서장』에 제시된 「狗子無佛性話」⁶⁾를 비롯한 화두 참구시의 방법과도 같은 병통들은 다음과 같다.

가) 「答富樞密」에서는 조주의 ‘구자무불성화’를 참구함에 있어서 ‘無’자 화두 참구시의 유의 사항과도 같은 참구 방법을 다음과 같이 ① ‘不得作有無會’ ② ‘不得作道理會’ ③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④ ‘不得向揚眉瞬目處探根’ ⑤ ‘不得向語路上作活計’ ⑥ ‘不得颺在無事甲裏’ ⑦ ‘不得向舉起處承當’ ⑧ ‘不得向文字中引證’이라는 여덟 가지로 나열하여, ‘無’자 한 글자가 허다한 나쁜 지견과 나쁜 알음알이를 꺾는 무기가 됨을 설하며 무자화두 참구법을 제시하였다.⁷⁾

5) 윤미란 2023, 153.

6) 『古尊宿語錄』卷13 (X1315, 68:81a4-6), “問, 狗子還有佛性也無. 師云, 無. 學云, 上至諸佛, 下至螻子, 皆有佛性, 狗子爲什麼無. 師云, 爲伊有業識性在.”

7) 『大慧普覺禪師語錄』卷26 (T1998, 47: 921c), “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此一字子, 乃是摧許多惡知惡覺底器仗也. 不得作有無會, 不得作道理會,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不得向揚眉瞬目處探根, 不得向語路上作活計, 不得颺在無事甲裏,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向文字中引證, 但向十二時中四威儀內, 時時提撕, 時時舉覺, 狗子還有佛性也無, 云無, 不離日用, 試如此做工夫看, 月十日便自見得也, 一郡千里之事, 都不相妨”(어떤 승이 조주선사께 “개에게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라고 여쭙니, 조주선사가 “없다”라고 답했다. 이 한 글자는 바로 허다하게 나쁜 지견과 나쁜 알음알이를 꺾는 무기입니다. ①유 무라는 생각을 내어 알리고 하지 말고, ②어떤 도리라고 하면서 알리고 하지 말며, ③의근에서 사랑분별로 헤아리지도 말고, ④선사가 눈썹을 움썹이고 눈을 깜박거리는 데에서 근거를 이끌어내지 말며, ⑤말길에서 살 궁리를 내지 말고, ⑥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지 말며, ⑦선사가 들어 제기하는 곳에서 알아내려고 하지 말고, ⑧문자에서 증거를 끌어대지 말아야 하며, 다만 하루 일상 가운데 사위의 속에서 항상 지니어 가지고 항상 들고 알아차리면서, “개에게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한 것을 일상에서 여의지 않고 이와 같이 시도해서 공부를 하고 참구한다면, 어느 날에 문득 저절로 보게 될 것이니, 한 고을의 천리의 일이 전부 다 방해롭지 않을

나) 「答張舍人」에서는 무자화두참구법으로 ① ‘不得將心等悟’ ② ‘不得向舉起處承當’ ③ ‘不得作玄妙領略’ ④ ‘不得作有無商量’ ⑤ ‘不得作真無之無卜度’ ⑥ ‘不得坐在無事甲裏’ ⑦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를 제시하였다.⁸⁾ 가) 「答富樞密」에서 언급한 여덟 항목 가운데 다섯 개의 항목이 겹치고 새롭게 제시한 두 개의 항목인 나) - ① ‘不得將心等悟’, ⑤ ‘不得作真無之無卜度’이 가) 「答富樞密」의 여덟 항목과 함께 후에 보조 지눌에 의해 ‘무자화두십종병’으로 확립되게 된다.

다) 「答陳少卿」에서도 무자화두 참구법으로서 ① ‘不可向意根下卜度’ ② ‘不可向言語上作活計’ ③ ‘不得向開口處承當’ ④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⑤ ‘不得將心待悟待休歇’을 제시한다.⁹⁾ ① ‘不可向意根下卜度’ ② ‘不可向言語上作活計’ 두 개의 항목은 위의 가) - ③, ⑤ 항목과 겹치고 ④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⑤ ‘不得將心待悟待休歇’ 두 개의 항목은 나) - ⑦, ①과 겹친다. ③ ‘不得向開口處承

것입니다), 「答富樞密」.

8) 『大慧普覺禪師語錄』卷30 (T1998, 47: 941b), “情識未破, 則心火燭燼地, 正當恁麼時, 但只以所疑底話頭提管, 如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只管提撕舉覺, 左來也不是, 右來也不是. 又不得將心等悟, 又不得向舉起處承當, 又不得作玄妙領略, 又不得作有無商量, 又不得作真無之無卜度, 又不得坐在無事甲裏, 又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直得無所用心, 心無所之時, 莫怕落空. 這裏却是好處, 驀然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정식을 부수지 못하면 마음의 망상의 불꽃이 선명할 것이니, 딱 이러한 때를 당해서는 단지의 심되는 바의 화두를 이끌어 참구하되, 어떤 승이 조주선사께 “개에게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여쭙니, 조주선사가 “없다”라고 한 것과 같은 것을 오로지 지니어 가져서 들고 깨달아야 할 것인데, 이렇게 해도 옳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옳지 못합니다. 또한 ①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②선사가 들어 제기하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말며, ③현묘한 도리라는 생각도 내지 말고, ④유무로 헤아림도 내지 말며, ⑤참된 무의 무라는 것도 헤아리지 말고, ⑥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 앉아 있지도 말며, ⑦종사와 눈빛이 부딪히는 곳에서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장 마음을 쓸 곳이 없고 마음이 갈 바도 없게 되는 때에 공에 떨어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곳이 도리어 좋은 곳이니 손살같이 쥐가 소뿔에 들어가다가 문득 거꾸러져 처박힘을 보게 될 것입니다), 「答張舍人」.

9) 『大慧普覺禪師語錄』卷26 (T1998, 47:923b-c), “其實本體亦無若干, 請公只恁麼用心, 日用二六時中, 不得執生死佛道是有, 不得撥生死佛道歸無, 但只看狗子還有佛性也無, 趙州云無. 切不可向意根下卜度, 不可向言語上作活計, 又不得向開口處承當, 又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狗子還有佛性也無, 無. 但只如此參, 亦不得將心待悟待休歇. 若將心待悟待休歇, 則轉沒交涉矣” (사실 본체 또한 약간도 없으니, 청컨대 공께서는 단지 이렇게만 마음을 써서 일상생활에서 늘상 생사와 불도에 집착하는 것이 유라고도 하지 마시고, 생사와 불도를 빼내어 버리고 무로 돌아간다고도 하지 말고, 단지 “개에게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만을 참구하되, 절대로 ①의근에서 헤아리지 말고, ②말길에서 살 공리를 내지 말며, ③입을 여는 데에서도 알려고 하지 말고, ④종사와 눈빛이 부딪히는 곳에서도 알려고 해서 안 되니, “개에게도 도리어 불성이 있습니까?” “없느니라”. 단지 이와 같이 참구하되, 또한 ⑤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쉬어지길 기다려서도 안될 것인데, 만약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거나 쉬어지길 기다린다면 더욱더 교섭됨은 없을 것입니다), 「答陳少卿」.

當’은 아마도 가) - ⑦, 나) - ②의 ‘不得向舉起處承當’과 유사한 의미로 제시한 듯하다.

화두의 종류 자체에 따른 참구법을 별도로 제시하였다기 보다는 화두를 참구하는 이의 근기와 분상에 맞게 제시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본다.

또, 라) 「答呂舍人」에서는 ‘간시궐’ 화두를 제시하며 ① ‘不得向舉起處承當’ ② ‘不得颺在無事甲裏’ ③ ‘不可舉時便有不舉時便無’ ④ ‘不得將心等悟’의 네 가지로 화두 참구법을 일러준다.¹⁰⁾ ① ② ④ 세 항목이 무자화두 참구에서 일러준 것과 겹친다. ③은 화두 참구시 일념상속이 되지 않는 병통을 말한다.

마) 「答呂郎中」에서는 ‘간시궐’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도 무자 화두 참구법에서 제시한 항목 가운데에서도 보이는 것으로서 ① ‘不得向舉起處承當’과 ② ‘不得思量卜度’으로 제시하였다.¹¹⁾

바) 「答呂舍人」에서는 일반적인 화두참구법으로 ① ‘不得向舉起處承當’ ② ‘不得思量卜度’을 제시하면서,¹²⁾ 마) 「答呂郎中」의 ‘간시궐’ 화두 참구시와 동일

10) 『大慧普覺禪師語錄』卷28 (T1998, 47:931c), “乾屎橛如何覺得, 沒巴鼻無滋味肚裏悶時, 便是好底消息也。第一不得向舉起處承當, 又不得颺在無事甲裏, 不可舉時便有不舉時便無也, 但將思量世間塵勞底心回在乾屎橛上, 思量來思量去, 無處奈何, 伎倆忽然盡, 便自悟也。不得將心等悟, 若將心等悟, 永劫不能得悟也”(간시궐에서는 어떻게 습니까? 단서도 없고 재미도 없어서 가슴 속이 갑갑한 때가 문득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가장 먼저 ①선사가 들어 제기하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한 ②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지 말며, ③화두를 들 때는 문득 있다가도 들지 않을 때는 바로 없어지게 하지 말 것이니, 다만 세간의 번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시궐 화두에다 되돌려 놓고 사랑하다가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곳에서 기량이 훌연히 다하게 되어 문득 저절로 깨달을 것입니다. ④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만약에 마음을 가지고 깨닫기를 기다린다면 영겁토록 깨달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答呂舍人」.

11) 『大慧普覺禪師語錄』卷28 (T1998, 47:930c), “靜處鬧處常以乾屎橛提撕…… 話頭上疑破, 則千疑萬疑一時破, 話頭不破, 則且就話頭上與之廝崖, 若棄了話頭, 却去別文字上起疑, 經教上起疑, 古人公案上起疑, 日用塵勞中起疑, 皆是邪魔眷屬。又不得向舉起處承當, 又不得思量卜度, 但只著意就不可思量處思量, 心無所之, 老鼠入牛角便見倒斷也, 寫得如此分曉了, 又却更來初初怛怛地問不知許多聰明知見向甚處去也”(화두에서 의심이 타파되면 천 가지 의심과 만 가지 의심이 일시에 타파되지만, 화두를 타파하지 못한다면 장차 화두에 나아가 그것과 더불어 간절히 해야 하는데, 만약 화두를 버려두고 도리어 별도로 문자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에서 의심을 일으키고 고인의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번뇌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다 샅된 마구니의 권속입니다. 또한 ① 선사가 들어 일으키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한 ② 사랑분별로 헤아리지 말 것이니, 단지 뜻을 붙이고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사랑하면 마음이 갈 바가 되어, 쥐가 소뿔에 들어가다가 문득 거꾸러져 처박히게 됨을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써준 것이 분명하였는데 또다시 도리어 거듭 편지를 보내와서 어지럽게 물으니 그 많던 총명하던 지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答呂郎中」.

12) 『大慧普覺禪師語錄』卷28 (T1998, 47:930a), “若棄了話頭, 却去別文字上起疑, 經教上起疑, 古人公案上起

한 항목이며 알음알이로 사랑함을 경계해 보이는 것으로서 두 항목 모두 무자화두 참구법에서 제시된 것과도 겹친다.

이와 같이 대혜 종고의 『서장』에서는 화두 참구에 대한 병통을 말하려 하기 보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이자 금기사항을 일러준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한 것을 행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병통이 되므로 후에 ‘무자화두십종병’ 혹은 ‘간화십종병’으로서 정착되었다고 하겠다.

III.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의 확립과 전개

1.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 확립

보조 지눌은 「간화결의론」에서 대혜 종고가 언급한 무자화두 참구법들을 열 가지 항목으로 집약하여 무자화두 내지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의 화두 참구법으로서의 ‘무자화두십종병’으로 확립하여 설한다. 그것의 순서는 대혜가 설한 가) 「答富樞密」의 ① ‘不得作有無會’ ② ‘不得作道理會’ ③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④ ‘不得向揚眉瞬目處採根’ ⑤ ‘不得向語路上作活計’ ⑥ ‘不得颺在無事甲裏’ ⑦ ‘不得向舉起處承當’ ⑧ ‘不得向文字中引證’에다 ①과 ② 사이에 나) 「答張舍人」의 ⑤ ‘不得作真無之無卜度’을 ②에 배정하여 한 항목씩 밀려나게 하였고, 마지막 ⑩에 나) 「答張舍人」의 ① ‘不得將心等悟’를 배정하는 것으로서 열 개 항목을 만들어 ‘무자화두십종병’으로 정착하게끔 하였다.¹³⁾ 이와 같이 보조 지눌의 ‘무

疑, 日用塵勞中起疑, 皆是邪魔眷屬. 第一不得向舉起處承當, 又不得思量卜度, 但著意就不可思量處思量, 心無所之, 老鼠入牛角便見倒斷也”(만약 화두를 내버려두고 도리어 별도로 문자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경전의 가르침에서 의심을 일으키며 고인의 공안에서 의심을 일으키거나 일상의 번뇌 속에서 의심을 일으킨다면 모두 다 샷된 마구니의 권속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①들어 제기하는 곳에서 알려고 하지 말고, 또한 ②사랑분별로 헤아리지 말 것이니, 다만 뜻을 붙이고 사랑할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사랑하면 마음이 갈 바가 없게 되어, 쥐가 소뿔에 들어가다가 문득 거꾸러져 처박히게 됨을 볼 것입니다.), 「答呂舍人」.

13) 지눌은 「간화결의론」에서는 위와 같은 순서와 항목으로 간화십종병을 제시하였으나,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에서는 대혜 종고가 『서장』의 「答富樞密」에서 조주의 ‘狗子無佛性話’ 참구법으로 제시한 무자화두 참구법 여덟 가지 항목을 순서 그대로인 “① 不得作有無會 ② 不得作道理會 ③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④ 不得向揚眉瞬目處採根 ⑤ 不得向語路上作活計 ⑥ 不得颺在無事甲裏 ⑦ 不得向舉起

자화두십종병'은 대혜 종고의 『서장』에서 제시한 ‘무자’와 ‘간시궐’ 화두참구, 여타의 일반적 화두 참구시에 금기시되어야 할 유의 사항이자 참구 방법인 항목들에서 결속되었음을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대혜 종고 『서장』에 제시된 화두 참구법

	無字話			乾屎橛話		一般話
	가)	나)	다)	라)	마)	바)
	答富樞密	答張舍人	答陳少卿	答呂舍人	答呂郎中	答呂舍人
①	不得作有無會	不得將心等悟	不可向意根下卜度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向舉起處承當
②	不得作道理會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可向言語上作活計	不得颺在無事甲裏	不得思量卜度	不得思量卜度
③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不得作玄妙頌略	不得向開口處承當	不可舉時便有不舉時便無		
④	不得向揚眉瞬目處採根	不得作有無商量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不得將心等悟		
⑤	不得向語路上作活計	不得作真無之無卜度	不得將心待悟待休歇			
⑥	不得颺在無事甲裏	不得坐在無事甲裏				
⑦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⑧	不得向文字中引證					

處承當 ⑧ 不得向文字中引證”을 옮겨 놓으며, ‘真無之無’와 ‘將迷待悟’를 합해서 ‘십종병’을 이루었다고 하였다. 후에 『간화결의론』에서 제시한 열 개의 항목의 순으로 묶인 십종병이 ‘무자화두십종병’으로 계승되어 논의와 인용이 거듭되었다.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 vol. 4, 765c01-c13), “話頭, 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此一字子, 乃是摧許多惡知惡覺底器仗也. 不得作有無會, 不得作道理會,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不得向揚眉瞬目處採根, 不得向語路上作活計, 不得颺在無事甲裏,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向文字中引證. 但向十二時中四威儀內, 時時提撕, 時時舉覺, 狗子還有佛性也無, 云無. 不離日用. 試如此做工夫. 牧牛子曰, 此法語, 但彰八種病若檢前後所說, 有真無之無, 將迷待悟等二種, 故合成十種病也.”

위의 표에서 기울어진 글씨의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은 보조 지눌에 의해 무자화두십종병으로 정착된 항목들 가운데 그 명칭을 확연히 구분해 볼 수 있는 것들이다.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과 표현의 차이를 보이는 대혜의 화두참구법¹⁴⁾의 항목들은 다음과 같다. 나) 「答張舍人」의 ③ ‘不得作玄妙領略’과 ⑦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다) 「答陳少卿」의 ③ ‘不得向開口處承當’과 ④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 라) 「答呂舍人」의 ③ ‘不可舉時便有不舉時便無’이다. 이 가운데 나) 「答張舍人」의 ③ ‘不得作玄妙領略’은 가) 「答富樞密」의 ② ‘不得作道理會’와 상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 「答陳少卿」의 ③ ‘不得向開口處承當’은 가)의 ⑦, 나)의 ②, 라)의 ①, 마)의 ①, 바)의 ① ‘不得向舉起處承當’과 호응할 것이고, 나) 「答張舍人」의 ⑦과 다) 「答陳少卿」 ④의 ‘不得向擊石火閃電光處會’는 가) 「答富樞密」의 ④ ‘不得向揚眉瞬目處揅根’과 유사한 의미가 아닐까 한다.

라) 「答呂舍人」의 ③ ‘不可舉時便有不舉時便無’는 화두를 염념상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들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서 상응하는 항목은 찾을 수가 없다. 보조 지눌은 이 항목을 제외하고는 용어를 달리하였으나 같은 의미끼리 묶을 수 있는 것들을 모아 ‘10’이라는 만수로 하여 ‘무자화두십종병’이라는 열 개의 항목을 만들어 제시한 것이다. 대혜가 제시한 여러 차례의 화두 참구법은 열 개의 항목에 모두 귀결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또, ‘무자화두십종병’의 항목은 대혜가 제시한 무자화두참구법인 가) 「答富樞密」, 나) 「答張舍人」, 다) 「答陳少卿」 안에서 체결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화두를 참구하는 차제에서 번뇌망상이 들끓고 있는 바로 그때는 다만 의심하는 본분화두를 가지고 다잡아 의심해가야 한다. ‘어떤 승이 조주스님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스님이 이르기를 “없다”라고 하였다’는 것을 단지 지니어 가져서[提撕] 들고 깨쳐야만[舉覺] 한다. 오로지 한결 같이 붙들고 참구해 나가지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사랑분별로 알음알이를 일으켜 병통을 일으키는 수가 있다.

14) ‘不得-’이 붙어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되므로 화두 참구시의 금기 및 유의 사항이자 방법이 되기 때문에 ‘화두 참구법’이라고 한 것이다.

지눌은 무자화두 참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병통을 염두에 두고서 무자화두 참구시에 경계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① 유와 상대적인 무라는 분별을 해서는 안된다.
- ② 참된 무로서의 무라는 분별을 해서는 안된다.
- ③ 어떠한 도리라고 이해하려 해서는 안된다.
- ④ 의근에서 사랑 분별하며 헤아려서는 안된다.
- ⑤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이는 데서 근거를 헤아리면 안된다.
- ⑥ 말길에서 살 궁리를 모색해서는 안된다.
- ⑦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어서도 안된다.
- ⑧ 화두를 제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리려 해서는 안된다.
- ⑨ 문자를 끌어들여 입증해서는 안된다.
- ⑩ 미혹한 채로 깨달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¹⁵⁾

지눌이 「간화결의론」에서 제시한 화두 참구시의 방법들은 ‘무자화두’ 참구에 있어서 경계해야 할 금기사항들로서 최적화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무자화두십종병’이라고도 일컫게 된다. 그 십종의 병통을 행하지 않음이 바로 무자화두 참구법이 되기도 한 까닭으로 대혜가 무자화두 참구법으로서 제시한 것들이 ‘무자화두십종병’이라는 틀로서 형성된 것이다. 지눌이 「간화결의론」에서 제시한 무자화두 참구시 경계할 사항들은 그야말로 ‘무자화두’ 참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병통의 특성들이 우선 순으로 시작됨을 볼 수 있다.

‘무자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는 가장 먼저 유와 무의 상대적인 개념에 사로잡혀서 참구하게 되므로, ‘① 유와 상대적인 무라는 분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한 병통이 우선될 것이다. 그다음으로 유무의 상대적 개념을 여의고 나면

15) 「看話決疑論」(H vol. 4, 735a02-a14), “正當怎麼時, 但只以所疑底話頭提撕. 如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只管提撕舉覺, 左來也不是, 右來也不是. 不得作有無會, 不得作真無之無卜度, 不得作道理會,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不得向揚眉瞬目處捺根. 不得向語路作活計, 不得颺在無事甲裏,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文字中引證, 不得將迷待悟, 直須無所用心. 心無所之時, 莫怕落空, 這裏却是好處, 驀然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유무의 개념을 벗어난 참된 그 어떤 무가 있는가 하는 병통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므로 ‘② 참된 무로서의 무라는 분별을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유무의 상대적 개념도 진무(眞無)라는 개념도 여의어야 한다면 그 어떤 특별히 현묘한 도리가 따로 있는 것인가 하는 병통에 빠져들게 될지도 모르므로 ‘③ 묘한 도리라고 이해하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였다. 그러한 다음 이 모든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유와 무의 개념과 상관없이 또 다른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하면서 ‘④ 意根에서 사량분별하며 헤아리게 되고’, 그도 아닌가 싶으면, ‘⑤ 눈썹을 움푹거리고 눈을 깜박이는 데서 근거를 헤아리기도 하며’, 혹은 ‘⑥ 말길[語路]에서 살 궁리를 모색하고자 하며’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모두 아닌가 싶으면, ‘⑦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게 되고, 문득 ‘⑧ 화두를 제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려야 하는가’ 하다가 불조가 남긴 언구에서 ‘⑨ 문자를 끌어들여 입증해 보려고 하고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해 볼 방법이 없게 되면 ‘⑩ 미혹한 채로 깨달음을 기다리게 되는’ 병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병통의 순으로 볼 때, 지눌이 제시한 화두참구시에 일어나게 되는 열 가지 병통은 처음 세 가지를 우선 순으로 하여 ‘무자화두’ 참구시에 경계해야 할 순서들로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다.

2. 보조 지눌 계승의 무자화두십종병 전개

지눌의 직계 제자인 진각 혜심은 지눌의 화두참구 십종병의 순서와 항목 그 대로를 이어서 「구자무불성화간병론」¹⁶⁾을 찬술하였다. 혜심은 먼저, 내용 이해를 위한 설명 후에 「故揀云」의 형식을 취하여 기술하였다. 이는 지눌이 열 개의 항목으로 제시한 무자화두 참구시에 경계해야 할 사항이자 ‘무자화두십종병’에 대한 해설서로서 제시한 찬술이라 할 것이다. 지눌과 똑같은 순서와 용어로서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찬술하여 ‘무자화두십종병’으로 확립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지눌이 제시한 열 가지 ‘무자화두’ 참구법은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비로소 ‘무자화두십종병’으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16)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69c16-70b18)

〈표 2〉 보조 지눌과 진각 혜심의 ‘무자화두십종병’ 항목

	1)	2)
	보조 지눌 「看話決疑論」	진각 혜심 「狗子無佛性話揀病論」
①	不得作有無會 ¹⁷⁾	大惠揀云不得作有無之無
②	不得作真無之無卜度	故云不得作真無之無卜度
③	不得作道理會	故揀云不得作道理會
④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故揀云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⑤	不得向揚眉瞬目處探根	故揀云不得揚眉瞬目處探根
⑥	不得向語路作活計	故揀云不得向語路上作活計
⑦	不得颺在無事伊裏	故揀云不得颺在無事伊裏
⑧	不得向舉起處承當	故揀云不得向舉起處承當
⑨	不得文字中引證	又不得向文字引證
⑩	不得將迷待悟	故揀云不得將迷待悟

위의 표에 보이는 보조 지눌과 진각 혜심의 십종병 항목들은 기울어진 글씨 부분을 제외하고는 순서와 언구가 동일하다. 이를 통해,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은 진각 혜심이 스승인 보조 지눌이 제시한 무자화두 참구법 열 가지에 주석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진각 혜심의 해설을 이끌어서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① 不得作有無會: 어떤 사람은 “훌륭한 개에다가 불성이라는 두 글자로 오염시켜서는 안된다. 무슨 까닭이고 하면, 서시는 연지를 찌고 분을 바를 필요가 없다. 마치 산을 보고 산이라 하고 물을 보고 물이라 하고 주장자를 보고 단지 주장자라 부를 뿐이고 집을 보고 집이라 부르는 것처럼 개를 보고 단지 개라고 부를 뿐임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주선사께서 ‘무’라고 한 것이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 종류의 샷된 견해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그러므로 대혜선사가 “유무의 무라고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¹⁸⁾

17) 양쪽 항목에서 기울인 글씨는 대조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며, 이를 제외하면 두 항목은 동일하다.

18)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69c11), “或云好箇狗子上, 不可用佛性二字染污. 何故, 西施不用添脂粉也. 如云見山是山, 見水是水, 見拄杖, 但喚作拄杖, 見屋喚作屋, 何妨見狗子, 但喚作狗子. 故州云無. 如此等邪解, 不可勝數. 故大惠揀云, 不得作有無之無.”

② 不得作眞無之無卜度: 이미 이렇게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또 잘못되게 분별하면서, ‘유나 무에 떨어지지 않는 참된 무의 무이다.’라고 한다. 마치 『금강삼매경』에서 “만약 무를 여의고 유를 취하거나 유를 버리고 공을 따른다면 참된 무가 아니다. 지금 비록 유를 여의지만 공에 있지도 않다. 이와 같아야 비로소 제법의 참된 무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한 것과 같이 이렇게 잘못 안배할까 염려된 까닭으로 “참된 무라고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한 것이다.¹⁹⁾

③ 不得作道理會: 이미 이렇게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또 현묘한 도리일 것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도리일 것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²⁰⁾

④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이미 이렇게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또 머리를 숙이고 냉정히 앉아서 궁리하면서 찾기 때문에 “의근에서 사랑분별로 헤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²¹⁾

⑤ 不得向揚眉瞬目處探根: 앞에서 유무의 무나 참된 무라고 이해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고, 또 도리라고 하거나 사랑분별로 헤아려 정한 것도 허용하지 않았는데, 또 눈을 질끈 감거나 깜박이는 데에서는 이해하려고 해도 안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인지하고는 문득 고덕이 “눈을 깜박이고 눈썹을 움푹이는 곳에서 불조의 기를 분명히 드러내었다”라고 한 것을 끌어대었다. 또 어떤 이가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을 묻는데 ‘비밀한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답하니, ‘어떠한 것이 비밀한 작용입니까’라고 한 것에 눈을 떴다 감았다 하면서 보여준 종류로써 근거를 삼는다. 그러므로 “눈썹을 움푹거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데에서 근거를 끌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²²⁾

19)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69c07), “既不許伊麼定, 又錯計云, 不落有無 是眞無之無. 如金剛三昧經云, 若離無取有, 捨有從空而非眞無. 今雖離有而不存空. 如是乃得諸法眞無. 恐如此差排, 故云不得作眞無之無卜度.”

20)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a03), “既不許伊麼定, 又作玄妙道理會, 故揀云不得作道理會.”

21)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a04), “既不許伊麼定, 又低頭冷坐, 着意搜尋, 故揀云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22)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a06), “前既不許有無眞無會, 又不許作道理思量定. 又認着眼眨眨, 理會不得底爲是, 便引古德云, 瞬目揚眉處, 明明佛祖機, 又有問西來意, 答云當觀密作用, 云如何是密作用, 以目開合視之等爲據. 故揀云不得揚眉瞬目處探根.”

⑥ 不得向語路上作活計: 앞서 도리나 의리로 모색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고, 또 작용으로 잘못 취해서 정하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음을 살펴보았는데, 아무런 재미도 없는 연구에서 의심을 일으키면서 문득 원오선사가 “연구를 의심하지 않음이 크나큰 병통이 된다”라고 한 것을 끌어낸다. 그러므로 “말길에서 살 궁리를 내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²³⁾

⑦ 不得颺在無事甲裏: 이미 이렇게 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또 헤아리면서 “이치나 의리로 말하는 것도 전보다 허용하지 않았거늘 차라리 이러한 곳에서 마음을 쓰는 것은 아무런 일없는 것만 못하다”라고 하며, 저 덕산선사가 “일에도 마음이 없고 마음에도 일이 없으니 텅비었으면서도 신령스럽고 공하면서도 묘하다”라고 한 종류로 근거를 삼는다. 그러므로 “아무런 일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으면 안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²⁴⁾

⑧ 不得向舉起處承當: 이미 말길에서 살 궁리를 내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고, 또 아무 일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는 것으로 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자, “화두를 들려고 해도 들러지지 않을 때가 딱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며, 저 불안선사가 “헤아려 사랑분별하면 어느 세월에 깨닫겠으며 사랑분별하지 않으면 결국은 모호하게 되니 사랑분별하려는 것과 사랑분별하지 않음을 밝아 부순 때라야 만리에 구름한점 없이 항상 드러나 있게 된다”라고 한 것을 근거로 삼아서 견고히 집착하고 버리질 않는다. 그러므로 “화두를 들어 제기하는 곳에서 알아차리려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²⁵⁾

⑨ 不得文字中引證: 또 문자에서 끌어대어 증명해서도 안된다. 끌어대어 증명하는 것은 위의 여러 병통에도 통한다.²⁶⁾

23)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a12), “審前不許理路義路, 又不許認取作用定, 向沒滋味底言向上起疑, 便引圓悟云, 不疑言句是爲大病. 故揀云不得向語路上作活計.”

24)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a16), “既不許伊麼定, 又計云理路義路, 既不認許, 却向伊麼處用心, 不如無事, 如德山云, 無心於事, 無事於心, 虛而靈空而妙等爲據. 故揀云不得颺在無事匣裏.”

25)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a20), “既不許語路上作活計, 又不許颺在無事匣裏定, 謂欲舉未舉時正是好消息也, 如佛眼云, 擬思量, 何劫悟, 不思量, 終莽鹵 欲思不思, 踏破時萬里無雲常現露爲據, 堅執不捨. 故揀云不得向舉起處承當.”

26)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b01), “又不得向文字引證. 引證 通上諸病.”

⑩ 不得將迷待悟: 이미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게 되자 스스로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지금 미혹한데 어느 때나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며, 미혹함에 집착하면서 깨달음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미혹한 채로 깨닫기를 기다려서는 안된다”라고 하며 가려내었다.²⁷⁾

혜심은 지눌이 제시한 화두참구 십종병통을 무자화두 참구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병통의 순서에 맞춰 주석을 가한 듯한 형태로 논지를 펼치며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찬술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렇듯 지눌과 혜심의 십종병 항목은 제목에 명시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무자화두 참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통의 순서에 가장 가깝게 제시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므로 ‘무자화두십종병’이라고 명명하는 데에는 별다른 의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후에 진허 팔관, 백파 공선, 용성 진중은 지눌과 혜심의 ‘무자화두십종병’의 항목순을 계승하거나 인용하였기에 별다른 명칭을 가탁할 것이 못 된다. 그 항목들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 항목순 계통

	3) 진허 팔관 『三門直指』	4) 백파 공선 『無字揀病論科解』	5) 용성 진중 『總論禪病章』
①	不得作有無會	揀有無之無解	曰有無會
②	不得作真無之無卜度	揀真無之無解	曰真無會
③	不得作道理會	揀玄妙道理解	曰道理會
④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揀思量卜度解	曰意根下卜度
⑤	不得向揚眉瞬目處採根	揀揚眉瞬目解	曰揚眉瞬目處採根
⑥	不得向語路作活計	揀語路活計解	曰語路上作活計
⑦	不得聽在無事甲裡	揀無事匣裡解	曰聽在無事匣裏
⑧	不得向舉起處承當	揀舉起承當解	曰舉起處承當
⑨	不得文字中引證	揀文字引證解	曰文字中引證
⑩	不得將迷待悟	揀將迷待悟解	曰將迷待悟

27)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70b02), “既不許伊麼決定, 無可奈何, 自生難想, 謂即今迷, 幾時悟得, 執迷待悟. 故揀云不得將迷待悟.”

조선 후기 진허 팔관의 『삼문직지(三門直指)』²⁸⁾에서는 무자화두 참구시에 경계할 사항에 대하여 보조 지눌의 「간화결의론」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별도의 설명이 필요치 않다.

백과 공선의 「無字揀病論科解」에 제시된 ‘무자화두십종병통’²⁹⁾은 진각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대한 과해이므로 당연히 진각 혜심의 순서와 동일하다. 다만, ‘故揀云不得~’ 등과 같은 형식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과는 다르게 ‘一. 揀OOOO解’의 형식으로 네 글자로 된 문구로 맞추어 제시하였는데, 네 글자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항목과 일치하는지는 구분이 명확하다. 모든 항목의 맨 뒤에는 「解[알음알이]」를 덧붙였고, 그러한 알음알이를 ‘가려내는[揀]’ 과목이라는 의미가 드러나게 하였다.

용성 진종의 ‘十種禪病’³⁰⁾은 화두 참구법과 같이 ‘不得~’으로 시작하지 않고 ‘禪病’ 그 자체로서 “유와 무로 이해하는 것, 眞無로 이해하는 것, 도리로 이해하는 것, 의근으로 헤아리는 것,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곳에서 근거를 이끌어내는 것, 언어로 살 궁리를 모색하는 것,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 내 버려두고 있는 것, 화두가 제기된 곳에서 알아맞히려 하는 것, 문자에서 증거를 이끌어내는 것, 미혹한 채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것”으로 열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선가귀감』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방식[曰~]이지만, 그 항목의 순서는 보조 지눌을 따르고 있다.

28) 『三門直指』(H vol. 10, 160a23-b09), “正當恁麼時, 但只以所疑底話頭提撕, 如僧問趙州, 狗子還有佛性也無, 州云無. 只管提撕覺, 左來不是, 右來不是. 不得作有無會, 不得作眞無之無卜度, 不得作道理會,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不得向揚眉瞬目處採根, 不得向語路上作活計, 不得颺在無事甲裏, 不得向舉起處承當, 不得文字中引證, 不得將迷待悟, 直須無所用心. 心無所之時 莫怕落空 這裡却是好處 驀然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看話決疑論」(H vol. 4, 735a02-a14)에서 그대로 인용하면서, ‘左來也不是, 右來也不是’는 ‘左來不是, 右來不是’로 되어 있고, ‘不得颺在無事甲裏’, ‘這裏却是好處’의 ‘裏’는 ‘裡’로 옮겨져 있다.

29) 『禪文手鏡』(H vol. 10, 524c22), 「無字揀病論科解」에서는 백과 공선 자신의 삼종선 이론으로 십종병에 대하여 분류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30) 『백용성대중사총서』 『용성선사어록』(Y1, vol. 1, 32b01), 제5장 「總論禪病章」, “從知解上하야 有義路理路聞解思想之病하고 從義路理路聞解思想하야 有思議不思議之病하고 從思議不思議하야 有四路葛藤之病하니 曰有心求, 曰無心得, 曰言語造, 曰寂默通者 | 是也니라. 從此四路葛藤하야 有十種禪病하니, 曰有無會, 曰眞無會, 曰道理會, 曰意根下卜度, 曰揚眉瞬, 曰處採根, 曰語路上作活計, 曰颺在無事匣裏, 曰舉起處承當, 曰文字中引證, 曰將迷待悟 등이 是也니라.”

용성은 「總論禪病章」에서 보조 지눌로부터 계승되는 간화시의 십종병의 순서를 따라 제시하였고, 별도로 ‘열두 가지 선병[禪病十二]’으로 나누어 설한 부분도 있다.³¹⁾ 간화십종병의 ‘曰眞無會’와 ‘曰語路上作活計’에 대한 일치 항목은 없고, ① 교내와 교외를 논함[論教內教外], ② 부사의한 법계의 무장애한 지혜의 병을 논함[論不思議法界無障礙智病], ④ 무심의 병을 논함[論無心病], ⑤ 평상의 병을 논함[論平常病]을 추가하여 독자적인 열두 개의 항목으로 제시하였다. ‘④ 무심의 병을 논함[論無心病]’은 ‘曰眞無會’와 연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용성의 이러한 ‘禪病十二’를 제외하고는 용성이 제시한 「總論禪病章」, 진각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 진허 팔관의 『三門直指』, 백과 공선의 「無字揀病論科解」에서는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의 순서를 계승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허 휴정만이 그 순서를 달리해 보였으므로 그 연유를 짐작해 고찰하고자 한다.

IV. 청허 휴정의 간화십종병 배치 의도

1. 『선가귀감』의 간화십종병

청허 휴정의 『禪家龜鑑』에서는 여타의 문헌에서 제시된 ‘무자화두십종병’과는 그 순서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유 혹은 의도를 추정해 보고자 한다. 청허 휴정은 기존에 보조 지눌과 진각 혜심이 제시한 무자화두십종병의 순서를 따르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십종선병의 연원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해 종고의 순서도 따르지 않았다. 휴정의 독자적인 순서에 의한 항목으로서, 이는

31) 『백용성대종사총서』 『용성선사어록』(Y1, vol. 1, 33a01), 제5장 「總論禪病章」, “① 교내와 교외를 논함[論教內教外] ② 부사의한 법계의 무장애한 지혜의 병을 논함[論不思議法界無障礙智病] ③ 유무의 병을 논함[論有無之病] ④ 무심의 병을 논함[論無心病] ⑤ 평상의 병을 논함[論平常病] ⑥ 理致의 병을 논함[論道理病] ⑦ 의근으로 헤아리는 병을 논함[論意根下卜度病] ⑧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박이는 병을 논함[論揚眉瞬目病] ⑨ 일 없는 경계 속에 안주하는 병을 논함[論無事匣裏病] ⑩ 화두가 제기된 곳에서 알아맞히려고 하는 병을 논함[論舉起處承當病] ⑪ 인용해서 증명하려는 병을 논함[論引證病] ⑫ 미혹한채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병을 논함[論將迷待悟病].”

평소 외고 있던 기억 속의 산물들을 무작위로 끄집어내어 열거한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순서에 무언가 별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심을 해 보고자 한다.

화두를 들고 의심을 일으키는 곳에서 알아차리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하고 헤아리고 짐작하고 따져서도 안 되며, 또한 어리석은 채로 깨닫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 생각을 붙일 수 없는 곳에 나아가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나아갈 바가 없는 것이니, 마치 쥐가 쇠뿔에 들어가다가 문득 거꾸로 처박히게 되는 것과 같다. 또 늘상 생각으로 이래저래 끼워 맞추려는 것도 알음알이[識情]이고, 생사를 따라 흘러가는 것도 알음알이이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도 알음알이이거늘, 요즘 사람들은 병인 줄을 알지 못하고 단지 이 알음알이 속에서 나고 죽을 뿐이다.

[주석:] 화두를 참구하는 데에는 열 가지의 병통이 있다. ① 의근에서 사랑분별하여 미루어 짐작하려는 것이고, ② 선사가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거리는 데서 근거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며, ③ 말길에서 살 궁리를 모색하려는 것이고, ④ 경전이나 어록에 근거해서 대목을 찾아 인증하려는 것이고, ⑤ 화두를 제기하는 그 자리에서 알아차리려 하는 것이고, ⑥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며, ⑦ 유와 상대적인 무라는 분별로 알아내려는 것이고, ⑧ ‘참으로 없다’라는 의미의 무라고 하는 분별로 알아내려는 것이고, ⑨ 특정한 도리라고 이해하려는 것이고, ⑩ 미혹한 채로 깨닫기를 기다리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열 가지 병통을 여윈 사람은 화두를 드는 때만큼은 정신을 가다듬고 단지 ‘무엇인가’만을 의심할 따름이다.³²⁾

‘不得(～해서는 안된다)’이 붙으면 화두 참구 방법과 같이 되지만, 위의 인용

32) 『禪家龜鑑』(H vol. 7, 637a08-a21), “話頭不得舉起處承當 不得思量卜度 又不得將迷待悟 就不可思量處思量 心無所之 如老鼠入牛角 便見倒斷也 又尋常計較安排底 是識情 隨生死遷流底 是識情 怕怖惶惶底 是識情 今人不知是病 只管在裏許 頭出頭沒. [注:] 話頭有十種病 曰意根下卜度 曰揚眉瞬目處探根 曰語路上作活計 曰文字中引證 曰舉起處承當 曰躡在無事匣裏 曰作有無會 曰作真無會 曰作道理會 曰將迷待悟也 離此十種病者 但舉話時 畧抖擻精神 只疑是箇甚麼.”

문에서는 ‘不得’이 없이 그야말로 병통 자체를 언급하고 있다. 혼자서 갈팡질팡하며 사랑분별로 화두를 참구할 때 쉽게 일어나는 병통들이지만, 정법안장을 갖춘 선지식의 문하에서 입실점검이 지속된다면 알음알이에 의한 병통들은 밝은 선지식에 의해 단련되고 타파될 것이다. 곧장 화두를 참구해 가는 여정에서 화두가 순숙되어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청허 휴정이 나열한 간화십중병을 순서대로 화두 참구 방법과 연결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曰意根下卜度: 결국 의근에서 화두를 끌고 가겠지만, 자기 생각인 의근에서 사랑분별로 이리저리 따지고 알아내어 추측하거나 헤아려서는 안 된다.

② 曰揚眉瞬目處探根: 선사가 법을 보이느라고 눈을 껌벅껌벅하고 눈썹을 움직이는 곳에서 매몰되어 근거를 찾고 거기서 알아차리려거나 헤아려서도 안 된다. 주장자를 ‘꽂’ 치고 ‘할’을 하는 그 속에서 뭔가 해결하려거나 근거를 찾으려 하는 분별을 내어서도 안 된다.

③ 曰語路上作活計: 말이 오가는 데서 살 궁리를 내어서는 안 된다. ‘무엇이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인가’하고 물음에 ‘정전백수자(庭前柏樹子)’라고 한데서 말로 이리저리 사랑분별로 따져 알아내려 하면 안 되고, 말에서 해결하려는 생각이나 거기서 살림살이를 지어서도 안 된다.

④ 曰文字中引證: 조주선사가 어떤 때는 ‘무’라고 하고 또 다른 데서는 ‘유’라고 했다. 여기에서의 ‘무’는 바로 그 ‘무’라고 하며 문자 가운데서 인증해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 ‘어떤 것이 조사서래의입니까’하고 물음에 ‘정전백수자’라고 한 것을 두고 ‘정전백수자’에 어떤 언어적 의미를 부가하여 해석하면서 문자를 인용해서 증거를 대서는 안 된다.

⑤ 曰舉起處承當: ‘무’라고 화두를 드는 데서 자기 자신하고 화두 사이에서 뭔가 모르게 알아차릴 것만 같은 ‘무’일 것이라고 여겨서도 안 되고, 화두를 지니어 가지면서 ‘어째서 없다고 했는고 어째서 없다고 했는고’ 하며 작위적으로 알려고 해서도 안 된다. 종사가 법상에 올라서 주장자를 번쩍 들어 보이거나 화두를 제기하는 데서도 알아채려 해서는 안 된다.

⑥ 曰颺在無事匣裏: 멍청한 ‘무기’ 속에 앉아서 화두의 답을 찾으려 해서도 안

된다.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서 내맡기고 있어서도 안 된다.

⑦ 曰作有無會: 유와 무가 상대되는 ‘무’로써 어떤 대상의 유와 무를 대립적으로 상대한 대상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있다거나 없다가나 하는 그런 알음알이도 짓지 말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한 질문에 조주선사가 어떤 때는 ‘있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없다’고 하였다고 해서, ‘있다’ ‘없다’라는 의미의 유무의 무라고 하는 알음알이를 지어서는 안 된다.

⑧ 曰作真無會: 아예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로서 참으로 없는 ‘무’라고 했다는 착각을 내어서는 안 된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참으로 없는 ‘무’인 ‘진무’라고 하는 ‘무’로도 헤아려서는 안 된다.

⑨ 曰作道理會: 조주선사가 ‘무’라고 한 그 문답 사이에서 무언가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하는 그런 알음알이를 내지 말아야 하며, 여기에 무슨 오묘한 이치나 깊은 뜻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

⑩ 曰將迷待悟: 미혹한 채로 혹은 스스로를 미혹하다고 여긴채로 깨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알음알이에 의한 사랑분별의 병통을 여윈다면 화두가 일념으로 여일하게 된다. 마치 쥐가 소뿔 속에 발라놓은 기름을 훔아 들어가다가 뽀족한 뿔 속 끝까지 들어가게 되면 딱 끼어서 움짱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거기서 죽게 되는 것과 같이,³³⁾ 화두를 자꾸만 의심해가다 보면 한 생각으로 뚫뚫 뭉쳐지게 되고 그 한 생각마저 푹 끊어지게 되는 찰나에 의단이 타파된다. 문득 어떤 경계를 만나서 홀연히 깨닫는 때에는 닭 우는 소리를 듣거나 돌부리 걷어차는 순간과도 같은 그러한 때에 폭지일파(爆地一破)하여 확연히 깨치게 될 것이다.

화두가 타파되기까지는 화두참구가 잘 순숙되어야 하고 그 순숙도에 따라 병통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청허 휴정이 배치한 간화십종병의 항목 순서는 진

33) 중국인이 쥐를 잡을 때 소뿔에다 기름칠을 해서 쥐가 잘 다니는 곳에다 두면 쥐가 고소한 냄새에 이끌려 자꾸만 안으로 훔아 들어가다가 거꾸로 처박혀 좁은 곳에 주둥이가 딱 끼어서 나올 수가 없는 때에 이르면, 자꾸만 버둥거리다가 결국엔 뽀족한 주둥이가 점점 더 뿔 속에 처박히게 되면서 죽어버리게 된다.

각 혜심이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제시한 무자화두 참구시 일어날 수 있는 병통의 순서에서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는 병통 세 가지를 ⑦ ⑧ ⑨로 배치하고 나면, 맨 먼저부터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제시한 화두참구의 순서와 대조하였을 때 화두참구의 순속도와 관계가 되는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2. 간화십종병 배치 의도와 화두 참구 순속도의 관계

대혜 종고가 학인이나 사대부 등의 질문을 접하여 묻는 자의 근기와 당시 그들이 지닌 선병의 문제점에 대응하여 간화의 병통을 제시한 것이므로 그 순서가 체계화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이를 보조가 간화선의 화두참구, 특히 ‘무자화두’의 참구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정립한 것이므로 순서에 맞게 열 가지 항목으로 정비 조직하였으며, 이를 이어받아 후대의 청허는 자신의 입장에서 전체적 간화병통에 포커스를 맞춰 보조와 그 항목을 달리 배치했을 것이다. 그 연유를 짐작해보자면, 무자화두의 병통을 매우 중시하여 가장 앞에 유무(不得作有無會, 不得作眞無之無卜度)와 관련한 항목을 배치한 보조에 비해 청허는 간화선의 화두 참구 전체의 병통에 주목했으므로 의근으로 사랑분별하는 거친 병통을 가장 먼저 배정해서 선병이 생겨날 수 있는 순서대로 배치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고봉 원묘(高峰 原妙, 1238-1295) 또한 단교화상에 의해 ‘태어날 때는 어디서부터 오고 죽을 때는 어디로 가는가’하는 화두를 참구하던 초참자 시절에 의근에 의한 사랑분별로 화두를 참구하던 의리선 단계에서는 생각이 양분되고 혼란스러움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³⁴⁾ 알음알이에 의해 이치나 의리로서 사랑분별하는 의리선 단계에서의 깨달음은 해오(解悟)에 해당할 것이다.³⁵⁾ 간화선 수행의 차제에서 향상일로의 진척을 보자면 맨 처음에는 이치적인 깨달음도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다. 그렇지만, 궁극의 깨달음에 있어서는 이 또한 알음알이의

34) 嚴美鏡(明後) 2021, 104.

35) 嚴美鏡(明後) 2021, 99.

『高峰原妙禪師禪要』(X1401, 70:712a1), “斷橋和尚, 令參箇生從何來, 死從何去, 意分兩路, 心不歸一.” 28. 通仰山老和尚疑嗣書」.

병통인 줄을 알아차리고 궁극의 향상으로 나아가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래서, 대혜 종고를 비롯한 선사들이 이치로 사랑분별하는 단계의 화두참구를 병통으로 간주하고서 그 종류를 세분한 것이고 그것 또한 차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청허의 ‘간화십종병’ 항목의 배열 순서를 보자면, 무자화두는 물론이고 보편적으로 화두 참구시에 일어날 수 있는 선병으로서의 간화십종병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은 『선가귀감』에서 ‘話頭有十種病’이라고 제시한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두 혹은 화두참구에는 열 가지 병통이 있다’라고 하였듯이, ‘무자화두’에 국한하지 않고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병통을 말하고 있으므로 간화십종병이라고 명명함이 옳다고 보는 것이며, 그 순서에서도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①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사랑분별로 화두를 참구해 가는 과정에서 오는 거친 부분에서부터 미세함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지눌이 열거한 항목이 ‘무자화두’에 특화된 화두참구 순서라고 한다면, 청허의 ‘禪病’에 대한 배열 순서는 어떠한 화두를 참구하건 간에 사랑분별이라는 알음알이로 화두를 참구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순서로 배치된 항목이라는 것이다. 보조 지눌 이후로 동일한 배치 순서로 이어져 온 것을 대조해 볼 때, 유독 청허 휴정의 간화십종병만이 아래와 같은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표 4〉 보조 지눌과 청허 휴정의 간화십종병 순서 대조

	1) 보조 지눌 『看話決疑論』	6) 청허 휴정 『禪家龜鑑』
①	不得作有無會	曰意根下卜度
②	不得作眞無之無卜度	曰揚眉瞬目處探根
③	不得作道理會	曰語路上作活計
④	不得向意根下思量卜度	曰文字中引證
⑤	不得向揚眉瞬目處探根	曰舉起處承當
⑥	不得向語路作活計	曰颺在無事匣裏
⑦	不得颺在無事甲裏	曰作有無會
⑧	不得向舉起處承當	曰作眞無會
⑨	不得文字中引證	曰作道理會
⑩	不得將迷待悟	曰將迷待悟

‘무자화두’ 참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병통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두드러지는 항목인 1)의 ① ② ③이 6)에서는 ⑦ ⑧ ⑨에 배정되어 있고, 간화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 병통인 6)의 ① ② ③은 ‘무자화두’의 기본적 병통의 바로 다음인 1)의 ④ ⑤ ⑥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1)의 ⑦ ⑧ ⑨와 6)의 ⑥ ⑤ ④는 그 순서의 선 후에 있어서 다른 항목에 비해 유연한 점으로 볼 때 1)과 6)의 순서가 서로 뒤바뀌어 있음을 볼 수 있다. ‘將迷待悟’는 ‘무자화두십종병’이나 ‘간화십종병’이나 맨 나중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항목으로서 1)의 ⑩과 6)의 ⑩에 속하는 병통이라는 것도 확인된다. 그러므로, 청허가 나열한 열 개의 항목을 순서대로 보자면, ‘무자화두’ 뿐만 아니라 모든 화두참구에 있어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선병으로서 ‘간화십종병’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이다.

화두를 참구하는 행위 자체는 의식의 작용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화두 참구를 이끌어 가는 것도 결국은 의근을 통해 이루어지겠지만, 그 어떤 화두를 참구할지라도 이 열 가지 알음알이로 헤아리려는 병통에서 벗어나야 화두가 일념이 되어 타파됨을 보게 된다. 마음을 쓸 것도 없고 마음이 갈 곳도 없을 때 일지라도 공에 떨어질까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쥐가 소뿔 속에 들어감에 문득 거꾸러지고 처박혀서 생명이 끊어짐을 볼 것이다. 천 가지 만 가지 의심이 푹푹 뭉쳐서 한가지 생각이 되고 그 한 가지 생각마저 푹 끊어질 때에 생각이 붙을 수 없는 그 근본자리가 확 드러나게 된다. 일체 망념이 단번에 끊어질 때 진여본성이 여실히 드러나 성품을 만나게[見性] 되는 것이다.

화두를 참구할 때도 하루 열두 때 중에 행주좌와 사위의 가운데에서 다만 ‘어째서 없다고 했을까’ ‘왜 삼서근이라 했을까’와 같이 일념으로 의심하여 화두만을 잘 잡드려서 살펴야 할 뿐, 심성도리에서는 이름을 여의고 상이 끊어졌다는 알음알이도 없애고, 한 생각이라도 불법지혜라는 것이 걸려 있으면 십종병에 걸린 것이므로 낱낱이 다 부정하여 모두 다 놓아버리게 되고, 또 놓아버리느니 놓아버리지 않느니 혹은 병에 걸리느니 병에 걸리지 않느니 하는 그런 알음알이조차도 없어야 한다. 화두 참구에 있어서의 십종병은 각각의 조목이 전부 알음알이 분별심으로부터 발생하는 병통이다. 열 가지의 조목들이 서로

별개로 완전히 차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세하게 열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 것으로 모든 조목은 그 뜻에 있어서 근본적으로는 알음알이라는 하나의 병통으로 연결되어 있다.

간화(看話)는 화두를 잘 지니어 가져서 들고 참구한다는 의미이다. ‘간(看)’이라는 말은 ‘살피본다’와 ‘간수(看守)한다’는 뜻을 함께 가진다. 이에 따라 어의상 간화선이라고 하면 참선학도는 화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그것을 오롯이 잘 지녀서 살피며 들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이러한 간화의 뜻이 온전히 그대로 화두 참구의 올바른 방향에 투영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보다도 ‘빈틈이나 끊어짐이 없는 공부’인 ‘무간단(無間斷)’에 달려 있다. 화두를 단지 간단없이 의식에만 오롯이 붙여 두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라 할 것이다. 화두 공부는 바로 이러한 무간단과 화두에 대한 의심이 최대한의 관건이라 하겠다. 이 두 가지 요건이 밀착되어 한 덩어리가 된 상태로 지속되지 않는다면 온갖 종류의 병통이 발생하게 된다.³⁶⁾

화두 참구 수행 중에 일념상속의 의단이 형성되지 못하면 갖가지 병통 또한 자연스럽게 올라오게 마련이다. 진각 혜심은 ‘揚眉瞬目處探根, 語路上作活計, 鷗在無事匣裏, 舉起處承當, 文字中引證, 將迷待悟’는 화두참구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펼쳐내기 어려운 선병이라고 설한다. 이러한 선병도 넓게 세분하여 말하자면 열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간략히 해 보면 ㉠有心, ㉡無心, ㉢言語, ㉣寂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래서 古人은 ‘有心으로도 구할 수가 없고, 무심으로도 터득할 수가 없으며, 언어로 지어낼 수도 없고, 적묵으로도 통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더 간략히 말하자면, ‘분별[思議]과 무분별[不思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옳지 못하고, 저렇게 해도 옳지 못하다고 하였다. 또 ‘이렇게 해도 터득할 수가 없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터득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지 않든 전부 다 터득할 수가 없다면, 분명하고도 분

36) 김영옥 2006, 16-17.

명하게 가려서 타파하고, 명확하고도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라 하였다. 만일 영리한 사람이라면 화두를 제시하는 것을 잘 듣고는 눈썹이 휘날리도록 곧바로 행하여야 마침내 화두를 타파하여 해매게 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렇지 못하더라도 선병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치 말고, 화두 참구에 재미가 있건 없건 관계하지 말며, 힘을 얻거나 얻지 못함에도 관계치 말고, 단지 어떠한 도리인지만을 지니어 가져서 참구하도록 하라는 것이다.³⁷⁾

알음알이로부터 의미와 이치, 견문과 사상의 병이 있게 되고, 그 의미와 이치, 견문과 사상이라는 병으로부터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병이 생겨나며, 사랑하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병으로부터 네 가지 갈등이라는 병이 발생하게 된다. 유심으로 구하거나 무심으로 얻거나 언어로 지어내거나 침묵으로 통달하는 것이 바로 네 가지 갈등인 것이다. 결국 이 네 가지 갈등으로부터 열 가지 선병이 있게 되므로 열 가지 선병을 네 가지 갈등으로 간략히 할 수 있다. 용성은 열 가지 선병도 ㉗ 유심, ㉘ 무심, ㉙ 언어, ㉚ 적묵에서 발생한다고 하였다. 혜심이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서 밝힌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혜심이 설한 ㉗ 유심, ㉘ 무심, ㉙ 언어, ㉚ 적묵의 순으로 청허가 열거한 간화십종병의 순서에 차례로 적용해 볼 수가 있다. ㉗ ‘有心’으로서 ① 의근에서 사랑 분별하며 헤아리는[曰意根下卜度] 거친 병통에서, ㉘ ‘無心’으로서 ②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깜박이며 생각하는 작용에 뿌리내리고 궁구하는[曰揚眉瞬目處揅根] 병통, ㉙ ‘言語’로서 ③ 말길[語路]에서 살 궁리를 모색하고[曰語路上作活計], ④ 문자를 끌어들여 입증하고[曰文字中引證], ⑤ 화두를 제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리려는[曰舉起處承當] 병통, ㉚ ‘寂默’으로서 ⑥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으며[曰颺在無事匣裏], ⑦ 유와 상대적인 무라고 분별하며[曰作有無會], ⑧ 참된 무로서의 무라고 분별하고[曰作真無會], ⑨

37) 정성본 2005, 33.

「狗子無佛性話揅病論」(H vol. 6, 70b05-70b18), “如上諸病中, 從揚眉瞬目, 至將迷待悟, 是時人難離之病, 廣而言之, 則有十種病, 略而言之, 則不出有心無心語言寂默. 故古人云, 不可以有心求, 不可以無心得, 不可以語言造, 不可以寂默通, 略而言之, 則不出思議不思議. 所以道, 左來也不是, 右來也不是, 又道, 伊麼也不得, 不伊麼也不得, 伊麼不伊麼惚不得, 則明明地棟破, 明明地現示. 若是靈利漢聊聞舉着, 剔起眉毛便行, 終不打之透, 其或未然, 莫管有病無病, 莫管有滋, 味無滋味, 莫管得力不得力, 但提撕看是箇什麼道理.”

특정한 도리라고 이해하며[曰作道理會], ⑩ 미혹한 채로 깨달음을 기다리는[曰將迷待悟] 등의 병통으로 나열된 것은, 화두참구 여정에서의 그 순속도에 의해 거침에서 미세함으로 진행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열 가지 항목으로 세분하여 십종병통으로 정립하였으나, 모두 의리나 논리로 사랑분별하는 것이므로 전부 다 유심의 작동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항목의 명칭에 드러나는 표면적인 분류로서 유심과 무심으로 구분하고, 언어나 적목에 가까운 것으로 굳이 나누어 세분해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V. 결론

간화선은 화두와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심중에 잘 지니어 가져서 들고 참구해 가면서 화두에 대한 ‘의심’을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 요건이다. 이러한 화두 참구에 알음알이가 작동하게 되면 다양한 병통이 생겨나게 된다. 화두 참구시에 일어날 수 있는 병통으로 대변되는 화두 참구 십종병은 대혜 종고의 『서장』 여러 곳에 산발적으로 제시된 화두 참구시의 방법이자 경계할 사항들을 보조 지눌이 모아서 같거나 유사한 항목들을 묶어 열 개의 조항으로 만든 것이다. 지눌에 이어 그의 제자인 진각 혜심, 조선의 청허 휴정과 백파 공선, 진허 팔관, 용성 진종 등으로 이어졌다. 진각 혜심은 스승과 그 순서 및 항목의 연구를 동일하게 하였다. 진각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에 과해를 한 백파 공선 또한 그 순서는 동일할 수밖에 없다. 진허 팔관은 보조 지눌의 「간화결의론」을 인용하였고, 용성 진종은 진각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을 인용하였으므로 보조 지눌을 계승한 것이 된다.

가장 먼저 유무의 무에 대한 알음알이에서 진무의 무로 이어지고 다음으로 현묘한 도리일거라는 알음알이로 이어진 처음 세 항목의 병통으로 볼 때, 이는 ‘무자화두’ 참구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지적되는 병통으로서 특화된 순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혜심의 「구자무불성화간병론」이라는 제목에서 이미 무자화

두에 대한 간병론이라고 제시하였고, 지눌의 「간화결의론」의 십종병에 대한 부연이기도 하므로 그 십종병통은 ‘무자화두십종병’이라 부름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진허, 백파, 용성이 제시한 십종병도 지눌의 순서를 따르거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므로 ‘무자화두십종병’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에 제시된 ‘간화십종병’은 여타의 전적들과는 그 순서를 달리하였는데 무작위로 섞어서 나열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을 할 법도 하겠지만, 유심히 보니 그 순서에 연유가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래서 나열 순서를 간화선의 화두 참구 수행의 순속도와 연계해서 살펴볼 수도 있겠다는 가정하에 고찰해 보았다. 맨 앞의 항목부터 차례로 살펴보면 사랑분별로 화두를 참구해 가는 과정에서 오는 거친 부분에서부터 미세함으로 진행되는 과정인 것이다.

먼저, ‘有心’으로서 의근에서 사랑분별하여 헤아리는 거친 병통에서부터 ‘無心’으로서 눈썹을 움직이고 눈을 껌벅이고, ‘言語’로서 말길에서 살 궁리를 모색하거나 문자를 끌어들여 입증하며 화두를 제기하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차리려 하고, ‘寂默’으로서 아무 일 없는 경계 속에다 내버려두고 있고 유무의 무라거나 진무의 무라거나 특정한 도리라고 이해하고 미혹한 채로 깨달음을 기다리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 네 가지로 귀결되어 진행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순서에서 명확한 근거를 보이고 있듯이 유심, 무심, 언어, 적묵으로의 거침에서 미세함으로 진행되어 화두 참구의 여정에 따른 순속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청허 휴정의 십종병통은 전체 화두에 적용되는 ‘간화십종병’이라 이름됨이 옳을 것으로 본다.

『선가귀감』에서 ‘화두(참구)에는 열 가지 병통이 있다[話頭有十種病]’라고 제시한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자화두’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화두를 참구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병통을 말하고 있으므로 ‘간화십종병’이라고 명명함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보조 지눌이 열거한 항목이 ‘무자화두’에 특화된 화두 참구 순서라고 한다면, 청허 휴정의 ‘禪病’에 대한 배열 순서는 어떠한 화두를 참구하건 간에 사랑분별이라는 알음알이로 화두를 참구하게

될 때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순서로 배치된 항목인 것이다. 보조 지눌의 무자화두십종병의 순서에서 맨앞의 세 항목을 후반부로 배치하고나면 항목배치의 순서가 거의 같다는 데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대혜 종고가 학인이나 사대부 등의 질문에 따라 근기별로 그들이 지닌 선병에 대응하여 간화 중의 병통을 제시한 것이므로 체계화된 조항으로 열거되지는 않았다. 그중 무자화두 참구시에 제시했던 병통에서 열 개의 항목을 조합하여 간화선의 화두 참구, 특히 ‘무자화두’의 참구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 정립하여 정비 조직한 이가 보조 지눌이다. 이를 이어받아 후대의 청허 휴정은 자신의 입장에서 전체적 간화병통의 순서에 맞게 재배열하여 보조와 항목을 달리 배치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 연유를 짐작하건대, 무자화두의 병통을 매우 중시하여 가장 앞에 유무(不得作有無會, 不得作眞無之無卜度)관련 항목을 배치한 보조에 비하여 청허는 간화선의 화두 참구 전체의 병통에 주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조 지눌의 「간화결의론」에 제시된 십종병통의 순서는 무자 화두 참구시에 보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통의 순서이므로 ‘무자화두십종병’이라 명명함이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고, 청허 휴정의 『선가귀감』에 제시된 십종병통의 순서는 여타의 화두 참구시에 일반적인 순서로 발생하는 병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든 화두 참구에 있어서의 그 순속도와 연관성이 있으므로 ‘간화십종병’이라 불리우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지므로 그 명칭을 구분지어 명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 무자 화두에는 ‘무자화두십종병’으로 여타의 화두에는 ‘간화십종병’으로 구분하여 화두 참구에 있어서 경계할 사항들을 엄두에 두고 임한다면 화두 참구가 더욱더 여일하게 순속해질 것이다.

참고 문헌 REFERENCES

◆ 약호 및 일차 문헌 Abbreviations and Primary Sources

- T 大正新修大藏經
X 大日本續藏經
H 韓國佛教全書
Y 白龍城大宗師叢書

- 『大慧普覺禪師語錄』(T1998, 47)
『古尊宿語錄』(X1315, 68)
『高峰原妙禪師禪要』(X1401, 70)
보조 지눌, 『看話決疑論』(H vol. 4)
보조 지눌, 『法集別行錄節要并私記』(H vol. 4)
진각 혜심, 『狗子無佛性話揀病論』(H vol. 6)
청허 휴정, 『禪家龜鑑』(H vol. 7)
신허 팔관, 『三門直指』(H vol. 10)
백파 긍선, 『禪文手鏡』(H vol. 10)
『龍城禪師語錄』(Y vol. 1)

◆ 이차 문헌 Secondary Literature

- KIM, Ho-Gui (김호귀). 2007. 「白坡巨璇의 [無字揀病論科解]에 대한 고찰」 [A Viewpoint of *Mija Ganbyungron Gwahae* by Backpa Gungsun], 『禪學』 (*Journal of Seon Studies*), vol. 18, 31-70.
- _____. 2019. 「용성진종의 「總論禪病章」에 나타난 십종병 고찰」 [A View about Ten Malfunctions in Chongron seonbyung jang(總論禪病章) by Yongsung Jinjong(龍城震鍾)], 『大覺思想』 (*Maha Bodhi Thought*), vol. 32, 221-245.
- KIM, Youngwook (김영욱). 2006. 「간화십종병(看話十種病)의 연원」 [The Origin of Ten Malfunctions in the Practice of *Hwadu*], 『법한철학』 (*Pan-Korean Philosophy*), vol.

42, 107-136.

- JUNG, Sungbon (정성본). 2005. 「眞覺國師 慧諶의 看話禪 연구」 [Jingak Hyesim on Ganhwa Seon], 『보조사상』 (*Journal of Bojo Jimul's Thought*), vol. 23, 71-136.
- LEE, Byung-Wook (이병욱). 2020. 「퇴옹성철의 보조지눌 사상의 비판과 두 사상의 공통점」 [Seongcheol's Criticism of Jinul's Thought and a Common Point of Two Thoughts], 『보조사상』 (*Journal of Bojo Jimul's Thought*), vol. 56, 77-112.
- PARK, Tae Won (박태원). 2010. 「간화선 화두간병론(話頭揀病論)과 화두 의심의 의미」 [Kanhwa Seon(看話禪)'s Hwadu kanbyung ron(話頭揀病論) and the Meaning of Hwadu's Doubt(話頭疑心)], 『불교학연구』 (*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KJBS)*), vol. 27, 155-211.
- UM, Mi-Kyoung [Ven. Myeongjun] (嚴美鏡[明俊스님]). 2021. 「백파 공선 『禪要記』 연구와 역주」 [A Study and Annotated Translation of *Seonyo gi* (禪要記) by Baekpa Geungseon(白坡亘璇)], PhD dissertation, Dongguk University.
- YOON, Miran (윤미란). 2023. 「『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의 경절문 一考」 [A Study on the Path of Direct Cutting in *Excerpts from the Dharma Collection and Special Practice Record with Personal Notes* (法集別行錄節要竝入私記) - Focusing on the Meaning of 'The Door of Entering the Way with No-mind'(無心合道門) and 'Observing the Keyword'(看話)], 『보조사상』 (*Journal of Bojo Jimul's Thought*), vol. 65, 133-160.
- YOUM, Jungseop (염중섭). 2018. 「慧諶의 「狗子無佛性話揀病論」 찬술 배경과 내용 분석 - 看話十種病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n Writing Background and Contents of Hyesim's 「Gujambulseonghwa Ganbyeongron(狗子無佛性話揀病論)」 - focusing on Ganhwa Sibjongbyeong(看話十種病) -], 『철학연구』 (*Philosophia*), vol. 148, 183-211.

Comparison of Item Arrangements between
the Ten Diseases of Mucha *hwadu* (無字話頭十種病)
of Pojo Chinul and Ten Diseases of *Kanhwa* (看話十種病)
of Ch'ŏnghŏ Hyujŏng³⁸⁾

UM, Mi-Kyoung (Ven. Myeongjun)
Acarya of Educatio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This paper compared and examined the arrangement of items in Pojo Chinul's Ten Diseases of Mucha *hwadu* (無字話頭十種病) and Ch'ŏnghŏ Hyujŏng's Ten Diseases of *Kanhwa* (看話十種病). The Ten Diseases of *Kanhwa*, represented by illnesses that can occur during *hwadu* exploration, originated from the *hwadu* exploration method sporadically presented in Dahui Zonggao's *Shuzuang* (書狀), and Pojo Chinul compiled the same or similar items into ten categories. Chinul was followed by his disciples Chin'gak Hyesim, Ch'ŏnghŏ Hyujŏng and Paekp'a Kŭngsŏn of Chosŏn, Chinhŏ P'alwan, and Yongsŏng Chinjong. The order of the Ten Diseases of *Kanhwa* presented in Ch'ŏnghŏ Hyujŏng's *Sŏnga kwigam* (禪家龜鑑) is different from that found in other records. Therefore, it is possible that the order of arrangement was connected with the level of maturity in *kanhwa* Sŏn's *hwadu ch'amgu* practice.

As a result, starting from the harsh pain of counting where one discerns righteousness and morality as "having mind" (有心), it is the place where you can move your eyebrows and blink your eyes with "no mind" (無心), find a way to live

38)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support of the research fund for Ācārya of Education, Jogye Order of Korean Buddhism in 2023.

in the way of “words” (言語), or use letters to discuss a topic and prove one’s point of view. Trying to notice right away, being confined in the boundary where nothing happens as a “silent silence” (寂默), understanding that there is nothing, “nothing nothing,” or a certain way, and waiting for enlightenment while being delusional are possible. Therefore, the Ten Diseases of *Kanhwa* of Ch’ŏnghŏ Hyujŏng can be seen as reflecting the degree of maturity according to the journey of studying the *hwadu*, which progresses from coarseness to “having mind” (有心), “no mind” (無心), “words” (言語) and “silent silence” (寂默). Therefore, it would be most appropriate to name the order of the Ten Diseases of Sŏn (十種禪病) presented in Pojo Chinul’s *Kanhwa kyŏrŭi ron* (看話決疑論) as the “Ten Diseases of Mucha *hwadu*” (無字話頭十種病), and the order of the Ten Diseases of Sŏn (十種禪病) presented in Ch’ŏnghŏ Hyujŏng’s *Sŏnga kwigam*, as the “Ten Diseases of *Kanhwa*”, because these orders of presentation are related to the level of maturity of the *hwadu ch’amgu* in Korean literature.

Keywords

Ten Diseases of Mucha *hwadu* (無字話頭十種病), Ten Diseases of *Kanhwa* (看話十種病), Diseases of Sŏn (禪病), Ten Diseases of Sŏn (十種禪病), Diseases of *Kanhwa* (看話病痛), *Kanhwa* Sŏn, (看話禪), *Hwadu* exploration (話頭參究)

2023년 08월 10일 투고
2023년 09월 06일 심사완료
2023년 09월 14일 게재확정